



‘신대륙의 과실미와 구대륙의 구조감을 동시에!’

샤토 생 미셸 컬럼비아 밸리 샤르도네

Chateau Ste. Michelle Columbia Valley Chardonnay

지역	미국) 워싱턴 주) 콜럼비아 밸리		
포도품종	샤르도네 100%		
알코올	14%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2~14℃		
테이스팅 노트	발랄하고 달콤한 사과향 혹은 시트러스의 아로마가 풍부하며, 약간의 향신료와 오크터치의 노트가 미각을 재미있게 한다		



제품설명



워싱턴 주에서 최대 면적의 와인 산지로 손꼽히는 콜럼비아 밸리는 프랑스 보르도와 같은 북위 46도에 위치하며 하루 중 17시간 가량의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는 ‘미국의 보르도’라고도 불리는 지역이다. 콜럼비아 밸리는 캐스케이드 산맥의 동쪽에 위치하여 사막과도 같은 건조한 기후 특성과 낮은 강수량으로 보다 집중도 있는 진한 풍미의 포도를 생산해낸다. 콜럼비아 밸리 샤르도네는 샤토 생 미셸의 아이콘 와인으로 발랄하고 달콤한 사과향, 시트러스의 풍부한 아로마가 특징이며 약간의 향신료와 오크터치의 노트가 미각을 재미있게 한다. 또한 구대륙의 복합적인 구조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단조로웠던 나파 위주의 와인에서 벗어나 미국 와인 산업에 새로운 척도를 마련한 ‘Best Value’ 와인으로 유명하다.

수상내역



2020빈티지 와인 스펙테이터 Wine Spectator 88점 "Best Value"
 2017빈티지 와인 앤 스피릿 Wine & Spirits 89점
 2017빈티지 와인 엔수지애스트 Wine Enthusiast 89점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